

밴쿠버 인도인의 거주유형

Spatial Patterns of Indo-Canadians in Greater Vancouver

조정규(전남대학교 지리학과, jjk3467@hanmail.net)

캐나다에서 민족집단의 지리적 분포는 지방, 주, 도시 그리고 도시 안에 지역들에 의해 넓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차이들의 많은 부분은 과거 이주와 정착패턴에서 역사적 뿌리를 갖는다. 대부분 가시적 소수민족집단인 최근의 이민자들은 정착에 있어 그들 자신의 독특한 패턴을 가진다. 그들은 압도적으로 큰 대도시 지역으로 몰린다. 1990년대에 도착한 이민자의 94%는 이 대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총 인구의 64%에 비교된다. 1990년대 이민자의 3/4은 3대 대도시,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에 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고용 기회와 같은 민족 집단의 많은 수의 존재는 그러한 패턴을 예견할 수 있다. 새로운 이민자는 “연쇄” 이민이라 부르는 과정인 그들의 먼저 안정된 이민자 친구와 친척 가까이 에 사는 것을 선택한다.

본 논문은 캐나다에 이민한 인도인의 이주와 정착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광역 밴쿠버는 아시아계 이민자의 비중이 아주 높은 곳이다. 중국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도인이다. 인도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 것은 밴쿠버에 정착한 이민 집단 중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밴쿠버에 이민한 인도인은 편잡출신의 인도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시크교도이다. 이 시크교도들은 시크 사원인 구르드와라를 중심으로 거주를 하고 있어 다른 이민자집단보다 집중지수 및 분리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도인의 캐나다 이주는 1897년에 시작되었으나 20세기 초에 영국계와 프랑스계의 반아시아적 사고에 의해 아시아인의 이민을 반대하는 이민법이 시행되면서 1907년 이후부터 1947년까지 인도인의 캐나다 이민은 사실상 닫혀있었다. 1962년 이후에 캐나다 이민법이 포인트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민이 급증하고 1980년대에 가족결합 이민정책이 실시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캐나다에 도착한 인도인들은 그들의 가시적 소수민족집단 지위를 빨리 인식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들이 다수 집단의 가치와 규범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들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보호하기위하여 그들은 문화와 민족의 아이덴티티와 연합을 위한 자신들의 필요를 강화하기 위하여 같은 인도인들을 차례로 유인한다.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집중과 주요한 집단들로부터 분리가 증가할 것이다.

본 논문은 캐나다의 광역 밴쿠버(Greater Vancouver)로 이민한 인도인의 이주와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인도인은 캐나다로 이민은 언제 시작되었고, 최초의 정착지는 어디인가? 캐나다의 이민정책과 인도인의 이민과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광역 밴쿠버에 거주하는 인도인들이 최초의 정착지와 거

주지 확산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광역 밴쿠버에서 인도인들은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 광역 밴쿠버는 수많은 민족집단이 거주하고 있는데 인도인들은 다른 소수민족집단과 분리 거주하고 있는가? 인도인들은 민족 엔클레이브(enclave)를 형성하면서 군집지역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에 정착한 인도인들은 대부분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정착하였다. 초기 밴쿠버의 주요 산업인 목재업이 발달한 밴쿠버 시의 북서쪽의 False Creek 주변에 있는 제재소에 고용되어 생활을 하였다. 1960년대 도시 내부의 개발로 공장지대가 주택지로 전환이 되면서 공장이 프레이저 강 유역으로 이전하면서 인도인들은 공장 근처인 City of Vancouver의 Sunset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을 하였다. 이 지역에는 시크교의 사원인 구르드와라가 건축되었고 “리틀 편집”으로 알려진 상가를 중심으로 민족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둘째, 1960년대 이후에 인도인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sunset을 중심으로 인도인이 집중하였으나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에 인도인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은 구도심지역에서 이미 주택지화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곳과 인접하고 농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New Westminster와 리치몬드 지역으로 거주지가 확대되었다.

셋째, 1980년대 들어서면서 광역 밴쿠버시에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시가지에서 그 수를 수용하지 못하자 밴쿠버의 교외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이 개발된 교외 지역은 퀴퀴틀람, 델타, 서리 등 lower mainland의 동부와 남부 지역이다. 인도인 이민자 중에서 농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인도인 정착지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른 민족 이민자들은 대부분 구도심지에 최초 정착을 원하는데 반해 인도인들은 도심지 밖에 정착하기를 원했다. 기존의 인도인 거주지와 가깝고 농업과 제조업에 종사하기 좋고 주택 가격이 싼 델타와 서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도인 집단 거주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넷째, 최근 인도인 이민자의 이민 사유 중 가족결합이 77.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민자 중 비영어 사용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도인 거주지로의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